한·중 광산업 협력해야 국제표준 선점

신용진 교수 '광산업 포럼'서 공동 R&D 필요 제기
광주 광산업 세계 5위 도약위해 인력양성 서둘러야

한국과 중국이 산학연(産學硏) 차원에서 광산업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연구개발(R&D) 파트너십 구축, 기술이전 활성화, 표준화에 따른 공동노력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한·중 광산업 교류협력포럼'에 참여한 신용진 조선대 교수는 '한·중 산학연간 광산업 협력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R&D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 "지금까지는 양국의 유사한 산업구조 때문에 부메랑 효과를 의식해 첨단기술의 교류가 미흡했다"면서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원천기술을 확보하자면 R&D에 관해 시급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 부문의 자격증을 서로 인정하거나 공동자격증을 발행, 신규시장 개척에 절대적인 첨병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005년 기준 세계 광산업 시장은 미주시장 85조원, 아시아 66조원, 유럽 45조원, 기타 25조원 규모로 균형을 맞추고 있으나 오는 2010년이면 아시아와 일본이 각각 135조원, 미주가 100조원으로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이 같은 전망은 세계시장을 제패하기 위한 대규모의 투자와 표준 선점으로만 가능하다"면서 "현재 IT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이 요구되는 가운데 앞으로 광산업을 비롯해 표준 확산이 가속될 것이어서 한·중 양국은 표준 선점을 위한 기술표준 공동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가 오는 2010년 세계 5위의 광산업기지로 도약하기 위해 광산업 2단계 사업, FTTH 서비스 개발사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광 전문인력 양성 등 단계적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일련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광주는 국제적인 광산업 중심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 광산업 분야의 경제유발효과도 부가가치를 포함한 생산액도 10조원을 넘어서고, 5만여명의 고용창출까지 가능해 지역경제 전체 생산액의 30%를 웃돌 것으로 기대된다.

신 교수는 "광산업이 21세기에 광주를 먹여 살릴 만한 대표적인 산업이 되려면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국제화,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에서 차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제화를 위해 중국과의 유기적인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이기태)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광주시·한국광기술원 등이 후원했으며 신 교수의 발제를 포함해 모두 8개 주제의 강연이 마련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내일 오픈

롯데마트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내에 국내 최대규모의 광주 월드컵점<사진>을 18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월드컵점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영업면적이 9천여평(할인점 3천200평, 쇼핑몰 5천800평)으로 패션몰과 할인점이 접목된 초대형 쇼핑몰이다.

패션몰에는 남·여 의류를 비롯해 스포츠 전문매장 등 10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했으며 할인점은 신선·가공식품과 생활·문화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롯데마트측은 특히 어린이 전용극장과 문화센터, 대형서점 등 20여개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1차상권인 월드컵점 반경 2㎞내에만 6만7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연간 매출목표를 2천억원으로 잡았다"며 "향후 광주 수완지구에도 이같은 복합 쇼핑몰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보상평가, 제일감정평가법인 선정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됐다.

16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민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주민동의를 거쳐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220만7천평에 대한 소유자 감정평가법인으로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현지실사를 벌인 뒤 혁신도시 부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실시한다. 감정평가는 토공이 토지, 건물, 수목 등 평가대상물건을 확정한 뒤 올 상반기 내 실시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상기온에 김·미역 20% ↑ 낙지·주꾸미 30% ↓

철 모르는 수산물값

예년보다 높은 겨울기온이 해수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추운 날씨에 수확하는 수산물과 비교적 따뜻한 시기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격곡선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수협광주공판장에 따르면 겨울철에 생산되는 김과 미역 등은 작년보다 10~20% 가량 가격이 오른 반면 겨울에 잘 잡히지 않는 낙지와 주꾸미 등의 가격은 10~30% 내렸다.

김의 경우 작년 1월 1속(100장)에 2천700~3천200원에 거래되던 중품 서남해산이 이달에는 3천~3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은 보통 11월 중순부터 수확에 들어가는데 이번 겨울에는 따뜻한 날씨 때문에 작년 12월 중순에야 출하되기 시작,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2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물미역도 생산량이 크게 줄어 완도산 물미역 1㎏이 작년 100원에서 올해 160원으로 크게 올랐다.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라는 전복가격도 덩달아 상승, 중간 크기 완도산 전복 1㎏이 4만원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올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업은행은 16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150여명을 초청해 '2007년도 경제전망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대어음 대상업체 더 늘리겠다"

기업銀, 광주·전남 중기인과 대화

16일 기업은행이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강권석 기업은행장과의 대화에서 우수고객에 대한 저금리 특별자금 지원방안과 지역에 특화된 상품판매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통신 윤풍식대표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 불안감에 최근 콜금리 인상으로 중기 대출금리가 1%이상 올라 고통받고 있다며 장기 거래고객 및 우수고객에 대한 저금리 특별자금 지원방안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총 2조원을 한도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패밀리론'을 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1만1천200여개 업체에 1조5천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할인어음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기업들이 할인료 인상의 부담을 안게 됐다는 삼령산업 백희종대표의 질문에는 현행 할인어음 금리보다 0.2~2% 정도 낮은 우대어음 등이 있다며 올해는 우대어음 대상 업체를 전국적으로 1천100여개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와함께 한전·도공·주공·철도공사·농촌공사 등 7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기업에 대한 발주정보를 바탕으로 융자를 해주고 납품이 끝나면 공공기관이 납품대금을 직접 대출은행에 갚는 '공공구매론'을 시행중인 만큼 관급공사를 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소개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업銀 '내고장 기업대출' 출시

기업은행이 호남지역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특별펀드 상품인 '내고장 기업대출'을 내놓았다. 1천억원의 별도 자금으로 조성된 내고장 기업대출은 기업은행과의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 BB-이상 기업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이 최장 5년, 시설자금이 최장 15년이며 일반대출에 비해 금리가 최고 0.6%포인트 낮다. 특히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을 부여해 0.5%포인트내에서 추가 감면이 가능하고 지역본부장 전결을 통해 자금지원 속도를 높였다.

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거나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

"시설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높일 것"

양 준 호 신임 광주지방 조달청장

"조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고객들에 봉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일 부임한 양준호(57)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시설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최대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청장은 또 "지역의무 공동계약대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권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청장은 ▲공공기관 사업 조기발주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극 활용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주일고와 한양대를 나온 양 청장은 중앙구매사업단 품질시험연구관,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등을 거쳤다. 부인 송영란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